

완전국민경선…문재인 1차서 과반 확보할까

민주당 경선 관전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대선행 티켓을 잡기 위한 경쟁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대부분 준용하기로 한 가운데 완전국민경선제, 순회경선, 결선투표제, 모바일 투표 등 세부 규칙을 둘러싸고 후보 간의 유불리가 엇갈리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이번 경선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에 차이를 두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권리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주는 ‘국민 참여경선’과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권리당원 부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완전국민경선제가 문 전 대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이재명·안희정 2위 싸움 치열할 듯 ‘비문연대’ 파괴력 주목…군소후보 ‘호남 반문 정서’ 기대

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규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장 투표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모바일(ARS)·인터넷 투표를 병행기로 한 점은 문 전 대표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최대 150만~200만 명까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100만 명 이상이 경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선투표제=‘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된 가운데 문 전 대표 이외의 주자들이 주장해온 결선투표제도 주목 대상이다.

문 전 대표 외의 후보들은 결선투표에 올라가 당내 ‘비문(비문재인)’ 표를 모두 흡수한다면 막판 역전의 가능성도 있어 2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지지율 당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2위 싸움을 벌일 유력 후보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주자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광주)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 적자를 자처하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의 선전 여부도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로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것이 지상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지역순회가 4차례로 국한, 경선 일정이 과거보다 축소됐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비문연대’ 파괴력=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야3당 공동 경선

및 공동 정부 구성’을 제안했는데도 당 지도부가 경선 룰 발표를 강행하자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 내외에서는 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경선에 참여해 2위 싸움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들이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동 정부 구성 촉구’에 뜻을 모은 바 있는 만큼, ‘비문연대’ 형태를 유지하면서 1차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는 후보를 밀어주는 등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선 보이콧 관측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호남 민심의 향배는 민주당 경선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타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 민심의 저변에 아직도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강하다는 점에서 호남에서의 반전의 드라마를 꿈꾸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특검 아니다”…최순실의 고향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6차 레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시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어느 당에도 가지 않겠다”

거취 입 열어…중간지대서 독자 노선 의지 밝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5일 거취 문제와 관련해 굳게 닫아온 입을 열고 독자노선의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유독 입당 또는 창당 등의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 문제에 관해 장고를 거듭해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바른정당 소속 의원 24명과 만나 “어느 정당에도 가지 않겠다. 중간지대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반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면서도 “지금 조언자들의 주된 생각은 특정 당에 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반 전 총장 측도 확인했다.

한 참석자는 반 전 총장의 발언 취지에 대해 “귀국 후 많은 민심을 청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자신 있게, 강하게 추진해서 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도 전했다.

그간의 연행 수위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단호하고 적극적인 변화가 임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주말 대선 정국의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 준비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박지원-김종인 조찬회동

“친문 빼고라도 개헌에 박차”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25일 조찬회동을 하고 개헌문제와 반기문 과의 연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특정 대선후보 측에서 개헌에 대해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제외하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니까 박차를 가해야 하다”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개헌이 되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라도 총선과 함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에 저도 반드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제한해

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결선투표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반 전 총장이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미 표명한 대로 여권으로 가서 앞으로 (함께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제가 보는 시각과 비슷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은 개혁입법 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표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설 연휴 전에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부겸 “3野 공동경선 치르자”

반문 연대·제3지대 합류 가능성은 일축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5일 문재인 전 대표와 문 대세론의 약점을 지적하며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한 야(野)3당 공동경선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으며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일축했다.

최근 당내 경선을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김 의원은 이날 광주 염주체육관 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명히 문재인 대세론이 있고 당내에서도 매일 느끼고 있지만 과거 선거 때 대세론 뒤에서 몸조심하다가 중간에 무너진 경우가 꽤 많았다”며 “문 대세론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탄핵의 세 체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라도 연대해 공동개헌해 국가를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그림을 내놔야 한다”며 야 3당 공동경선을 주장했다.

이어 “대선에서만 이겨서는 안 되며 개혁입법을 해야 하는데 의석수 120석으로 어떻게 하나”며 야권 연대를 통한 연립정권 수립을 다시 강조했다.

김 의원은 SNS 폭력 등 친문 패권주의 행태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며 성찰 있는 시민으로서 한 번 더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최권일기자 cki@

3년안에 승부 납니다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